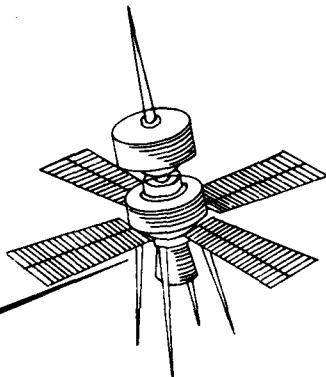


# 양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편집부차장)

## 새로운 협회운영

본회 '93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개선이 있었다. 다행히 회장은 참석대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란분과위원장 및 부회장을 역임 본회 발전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해 왔던 최준구 부회장이 추대되어 제13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본회 운영방안을 밝혔듯이 생산자들의 단합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소신을 천명하고 있어 형식보다는 실리를 바탕으로 본회를 이끌어 간다는 뜻임을 읽을 수가 있다.

본회는 '73년 6월에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기하고 양계에 관한 지

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양계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간 20여년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것은 양계산업이 증대되면서 전문성이 부여되기 시작하게 되자 조직을 이끄는 책임자가 어느 편인가에 따라 관심도가 달라져 왔던 점을 모든 양계인이 각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얻어낼 수 있었지만 가끔은 규모나 업종에 따라 요구가 달랐던 적도 있었으므로 이 시점에서 수입개방이라는 대전제하에 공존공생의 길을 모색키 위해 새로운 시각과 각오로 본회 운영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양계업에서 업종이 다르다 해도 닭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책임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닭이 오리나 꿩으로 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정치에서 경험했듯이 지역감정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었고,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양계업에 종사하는 본회 회원도 책임자가 누구냐를 말하기 앞서 참여의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게끔 해야 할 것이며, 새로 선출된 제13대 임원진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협회운영에 만전을 기할 때 양계산업은 번영할 것이다.

## 수입개방과 뜬소문

'93년 1월 1일자로 미절단신선·냉장닭고기와 난황이 수입자유화 됨에 따라 업계에는 근거 없는 수입설이 나돌아 생산자를 불안케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생산이 감소하여 산물가격이 반등되면 이같은 소문이 난무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개방예시조차 되지 않은 냉동계육이 수입되었다는 소문에 가뜩이나 출하가격에 초조한 양계인들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

본회가 이미 지난달에 조사한 설문에서 나타났듯이 양계산물의 수입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정밀 분석은 되어 있지 않은 점만 보아도 소문에 쉽게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되려면 검역소의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회도 수입업자가 동물검역소에 제출하는 검

역신청을 예의주시하여 관찰하고 있는데 금년 2월24일까지 신청건수가 계육의 경우는 기내식을 제외하고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협소문을 퍼뜨리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지난번 쇠고기가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었다는 보도가 나간후 더욱 이같은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이 된 계육이 있다면 냉장이나 냉동품이나 할 것 없이 부정 밀반입된 것이므로 행정기관에 조치도록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92년 난가가 상승하자 계란관련 품목이 대량 수입되었다고 야단을 떨었으나 최근 무역협회가 계란관련 품목의 수입통관 실적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중량으로 비교해 '91년에 비해 '92년에 거의 전품목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량으로 지속적인 수입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검역소가 '93년부터는 통관자료를 공개적으로 홍보키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소문만 믿을 것이 아니라 수입소문이 나면 즉시 확인하거나, 물증을 확보하여 반입 경로를 추적해서 국민보건을 위해서라도 행정조치가 취해지도록 전 양계인들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이 언제까지 불가능하리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고 경쟁력을 최단시일내에 확보하면서 근거도 없는 소문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어 일시에 출하현상이 빚어져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는 양계인들이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